

## 농업계 동향

### 농림수산식품부 내년 예산 및 기금(안) 14조 9,000억 원으로 편성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를 금년 대비 2,354억 원 증액된 14조 9,092억 원으로 편성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농촌 분야에 12조 2,596억 원, 수산업·어촌 분야에 1조 2,861억 원, 농식품 수출 및 식품업 분야에 7,121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 산업의 구조개편과 미래준비, 그리고 농어업인과 국민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2011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했다. 편성방향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개발(R&D), 중자산업 육성, 동식물·생명자원의 산업화 기반 조성, 농식품 수출확대 및 식품산업 육성, 수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신수산정책 등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둘째, 쌀 수급안정, 한·EU FTA 등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다.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해소 및 적정 수급구조로 전환을 위한 지원 대책 확대하고, 한·EU FTA에 대비,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셋째, 농어가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쌀소득보 전직불금 등 직불제 관련 지원 확대 및 농어업재해보험 확대 및 농지연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넷째,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저수지 둑 높이기,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관련 투자 확대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한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집행실적·실수요 등을 고려한 내실 있는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EU FTA 추진 경과

한·EU FTA는 지난 2007년 5월 시작하여 여덟 차례 협상(2007.5~2009.3)이 진행되었고, 한·스웨덴 정상회담(2009.7.13) 등을 통해 가서명(2009.10.15) 되었으며, 2010년 10월 6일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은 10월 6일 합동으로 한·EU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주요 협상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 측은 민감성을 고려하여 대EU 수입이 많은 축산분야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집중하였다. 냉동삼겹살(현행관세 25%)과 냉장삼겹·목살(22.5%)의 관세는 10년 안에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를 설정하였고 기타 품목은 5년 안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낙농품은 현행관세 유지 및 양허기간을 장기화하는 대신 분유·치즈 등에는 저율관세 수입물량(TRQ)을 설정하였다.

냉동 닭가슴살·날개(20%) 관세는 13년 안에 철폐, 냉장육(18%), 냉동 다리·기타 절단육(20%), 가공품(30%)의 관세는 10년 안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쇠고기(40%)는 15년 안에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를 설정하기로 했다. 육류에 대한 원산지규정은 당사국에서 출생·사육된 경우만 인정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사과, 배는 20년, 기타 품종은 10년간 양허가 허용되었다.

정부는 한·EU FTA 타결 이후의 대책 마련을 위해 그간 생산자대표,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주요 내용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확대, 백신 지원 등으로 질병 조기근절, 가축분뇨 자원화·유통 시설 등 인프라 구축 확대 등이며 11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EU FTA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진청, 벼 나방류 방제에 탁월한 고유 미생물 발굴!

- 여러가지 나방류 해충 동시에 방제 가능 -

농촌진흥청은 토양 속에서 벼 나방류에 살충효과가 우수한 천연미생물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미생물은 나방류 해충에 방제효과가 우수해 천연 살충제로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벼에 발생하는 나방류 해충은 흑명나방, 벼애나방, 줄점팔랑나비 등 4~5종이 발생되어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 벼농사에서 흑명나방에 의한 피해주율이 2009년 4.1%에서 2010년 6.9%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벼재배 농가에서는 생물농약을 이용해 방제를 시도하고 있다.

국내 고유의 미생물로 BTHARI 042라고 명명하고 특허출원한 이 천연미생물은 흑명나방 등 벼에 발생하는 다양한 해충에 대해 살충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벼 재배포장에서 흑명나방 방제효과 시험을 한 결과, 방제효과가 80% 이상으로 시판 친환경 유기농자재에 비해 5~25% 이상 더 높은 방제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국내에서 시판되는 생물농약은 대부분 살충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한 가지 나방류 해충에 대해서만 살충효과를 나타낸다. 이번에 찾아낸 국내 고유의 천연미생물은 여러 가지 나방류 해충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어 효과도 좋을 뿐 아니라 외화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진청은 나방류 해충에 대해 살충효과가 우수한 이 천연미생물을 특허출원했으며, 이 천연미생물의 대량 배양방법 등을 개발한 후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과장은 “친환경 벼 재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병충해 방제”임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개발한 나방류 해충에 살충효과가 탁월한 천연미생물 제재를 농가가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촌진흥청>

## 나방류 해충 방제는 '청색광' LED 트랩이 효과적

- 성페로몬 조합하면 유인효과 40~45% 증진 -

농촌진흥청은 농작물의 주요 해충인 나방류, 특히 두류 등 잡곡류의 주요 해충 중에서 방제가 어려운 담배거세미나방과 파밤나방을 대량으로 유인하는데 청색광 LED가 가장 효과적임을 밝혔다.

또한 청색광 LED와 성페로몬을 조합하면 담배거세미나방과 파밤나방의 유인효과가 기존 성페로몬트랩보다 각각 45%, 40% 증가되는 것으로 밝혀져 향후 이들 해충의 친환경 방제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잡식성 해충인 담배거세미나방과 파밤나방은 기주범위가 매우 넓어 시설작물 뿐만 아니라 노지작물에도 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시설작물 재배면적의 증가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1980년 중반 이후 그 발생량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방류 성충은 3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되며, 성충 1마리가 수천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밀도 증가가 매우 빨라 정밀한 예찰과 관리가 요구된다.

농작물을 직접 가해하는 유충은 시설조건에서는 5월 하순부터 11월 상순까지, 노지조건에서는 7월 상순부터 10월 상순까지 주로 발생된다.

또한 유충은 약제에 대한 내성이 높아 화학적 방제가 매우 어려워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성충을 대량으로 유인하여 유충의 발생량을 줄이는 효과적인 친환경 방제기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잡곡과 배순도 박사는 “나방류의 대량유인에 매우 효과적인 청색광 LED와 성페로몬을 동시에 활용해 잡곡 등 전작물의 나방류 정밀예찰과 친환경 방제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조기에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농촌진흥청>